

문화재청 공고 제2019-6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2. 26.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 연 번 | 현 지정현황                   | 문 화재명                               | 수 량 | 소유자<br>(관리자)             |
|-----|--------------------------|-------------------------------------|-----|--------------------------|
| 1   | 보물 제237호<br>(1963.1.21.) | 청자 ‘순화4년’명<br>항아리<br>(靑磁 ‘淳化四年’銘 壺) | 1점  | 이화여자대학교<br>(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 연 번 | 문 화재명                                            | 수 량                                                                                                                 | 소유자<br>(관리자)                |
|-----|--------------------------------------------------|---------------------------------------------------------------------------------------------------------------------|-----------------------------|
| 1   | 군위 인각사 출토<br>공양구 일괄<br>(軍威 麟角寺 出土<br>供養具 一括)     | 9종 18점<br>(청동북 1점, 금동사자형 병향<br>로 1점, 청동탑형 향합 1점, 청<br>동정병 2점, 청동이단합 1점, 금<br>동가릉빈가상 1점, 청동발 2점,<br>청동뚜껑 2점, 청지완 7점) | 대한불교조계종<br>인각사<br>(불교중앙박물관) |
| 2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br>대책 권5~6<br>(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br>對策 卷五~六) | 2종 4권 4책<br>(고려본: 2권 2책,<br>조선본: 2권 2책)                                                                             | 조** · 조** · 조**<br>· 조**    |

다.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mailto: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 예고】

□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

- 현 지정현황 : 보물 제237호(1963.1.21 지정)
- 명 칭 :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
- 소유자(관리자) :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35.6cm, 입지름 20.1cm, 굽지름 16.8cm.
- 재 질 : 도자
- 조성연대 : 993년(고려 성종 12)
- 사 유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는 고려 태조(太祖)를 비롯해 선왕들을 제사지내기 위해 건립한 태묘(太廟)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왕실 제기(祭器)이다. 굽 안쪽 바닥면에 돌아가며 ‘순화 4년 계사년 태묘 제1실 향기로서 장인 최길희가 만들었다(淳化四年 癸巳 太廟第一室 享器 匠崔吉會 造)’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993년(고려 성종 12) 태묘 제1실의 향기(제기)로 쓰기 위해 장인 최길희가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황해북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 위치했던 태묘는 송나라 제도를 참고해 992년(고려 성종 11) 12월에 건립되었고 제1실에는 태조와 태조비의 신주(神主)가 봉안되었다고 한다.

문양이 없는 긴 형태로서 구연(口緣)이 넓고 직립되어 있으며 몸체는 어깨 부분이 약간 넓은 유선형(流線形)이다. 표면에 미세한 기포가 있으나 비교적 치밀한 유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여 태토의 품질이 좋다. 전체적으로 녹갈색을 띠는 반투명 유약을 고르게 입혔고, 나뭇재가 많이 섞인 회유계(灰釉系) 유약의 특성에 따라 유약층이 얇고 부분적으로 유약이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다. 유면에는 은은한 광택과 함께 미세한 빙렬(氷裂)과 군데군데 굵힌 사용 흔적이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1989년~1990년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주관한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2호 가마터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순화 3년(992)명 고배(淳化三年銘 高杯)’를 비롯해 여러 파편들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청자 순화 4년명 항아리’ 역시 원산리 가마터에서 제작되어 태묘의 제기로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전하는 초기청자 가운데에서 드물게 크기가 큰 대형 항아리로 태토의 품질이 우수하고 기형이 비슷한 사례가 없는 유일한 형태로서 주목된다. 또한 굽 안쪽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년도, 기명의 용도 및 사용처, 제작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황해남도 원산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순화’명(‘淳化’銘) 파편들과의 비교연구로 고려 왕실 제기 생산 가마터를 비롯해 다양한 사료가 추가로 밝혀짐으로써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편년자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이 매우 큰 작품이다. 우리나라 청자 발달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중요한 유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측면에서 국보로 승격할 의의가 충분하다.

## 【보물 지정 예고】

### □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軍威 麟角寺 出土 供養具 一括)

- 명 칭 : 경북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軍威 麟角寺 出土 供養具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불교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9종 18점  
청동북(1점), 금동사자형 병향로(1점), 청동탑형 향합(1점), 청동정병(2점), 청동이단합(1점), 금동가릉빈가상(1점), 청동발(2점), 청동뚜껑(2점), 청자완(7점)
- 규 격 : 청동북 15.2×40.0cm, 금동사자형 병향로 7.4×37.6cm, 청동탑형 향합 18.0×8.6cm, 청동정병 35.2~39.7×7.5~8.2cm, 청동이단합 14.3×8.9cm, 금동가릉빈가상 높이 4.3cm, 청동발 9.8~11.1×20.3~20.7cm, 청동뚜껑 4.3×19.4~22.2cm, 청자완 높이 5.3~6.2, 구경 16.1~17.7cm, 저경 5.8~6.9cm
- 재 질 : 금동, 청동, 도자
- 조성연대 : 8세기 중반~10세기 중반
- 사 유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은 2008년 경상북도 군위군 인각사의 1호 건물지 동쪽 유구(遺構)에서 발원 유물로서 금속공예품과 도자류로 구성된 총 18점의 일괄 출토품이다.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고려 초기에 제작된 유물로 추정된다.

금속공예품은 총 11점으로 금동사자형 병향로(柄香爐), 향합(香盒), 정병(淨瓶), 청동북[金鼓] 등으로 구성되었고 사찰에서 사용하는 청동제 의례용품들로서 조형성 뛰어나고 섬세한 기법이 돋보인다. 그 중 불교에서 천상의 새를 상징하는 금동가릉빈가상(金銅迦陵頻伽像)은 그동안 출토 사례가 거의 없어 도상적(圖像的)으로 희귀하며 청동발과 청동뚜껑[접시] 역시 통일신라부터 유행한 전형적인 기형(器形)으로서 당대 공예기술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다.

군위 인각사 출토 일괄유물 가운데 청자 7점은 모두 당(唐) 월주요(越州窯)에서 생산된 중국산으로 추정된다. 발굴 당시 포개진 채 출토되어 공반(供伴) 유물로서 가치가 있으며 함께 출토된 금속유물의 제작시기 등을 추정하는데 참고가 된다. 청자는 8세기말~10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출토 중국도자의 편년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산 청자의 제작시기를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신라 말~고려 초 금속공예품들은 대부분 사찰이나 박물관 등지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물인 반면 인각사 출토 공양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보기 드문 금속기명과 청자 유물들이 공반 출토되어 명확한 출토지와 편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卷五~六)

- 명 칭 :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新刊類編歷學三場文選對策 卷五~六)
- 소유자(관리자) : 조\*\* · 조\*\* · 조\*\* · 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 2종 4권 4책(고려본: 2권 2책/ 조선본: 2권 2책)
- 규 격 : 고려본 : 전체 23.9×15.3cm 내외(반곽: 19.6×12.3cm)  
조선본 : 전체 23.9×15.3cm 내외(반곽: 19.6×12.0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
- 조성연대 : 고려본: 고려 말 추정, 조선본: 조선 초 추정
- 사 유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은 원나라 유인초(劉仁初)가 원(元)에서 시행한 향시(鄉試)와 회시(會試), 그리고 전시(殿試)의 ‘삼장(三場)’에서 합격한 답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1341년 새롭게 편집한 책이다. 이 책에 대한 고려시대 기록과 여타 전래본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은 비록 일부이지만 국내 유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지정 예고 대상은 총 72권 중 임집(任集)에 해당하는 고려본(2권 2책)과 조선본(2권 2책) 권5~6으로서 대책(對策)만 모은 것이다. 모두 금속활자로 인출하였고 일부 결락이 있으나, 간행 당시의 서지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 고려본은 간행 당시에 이미 마멸된 활자가 많았던 듯 보자(補字)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조선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미자(癸未字)는 계미년인 1403년(태종 3)에 주조하여 1420년(세종 2)년 경자자(庚子字)를 주조할 때까지 사용된 15세기 대표 활자이다.

이렇듯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의 고려본과 조선본은 여말선초 금속활자 주조와 전승 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아울러 원나라에서 시행된 과시(科試)에서의 답안과 국내 전래 상황을 보여주는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자료라는 점, 고려 말~조선 초 금속활자 인쇄술을 살펴볼 수 있는 희소한 판본 등을 종합해 볼 때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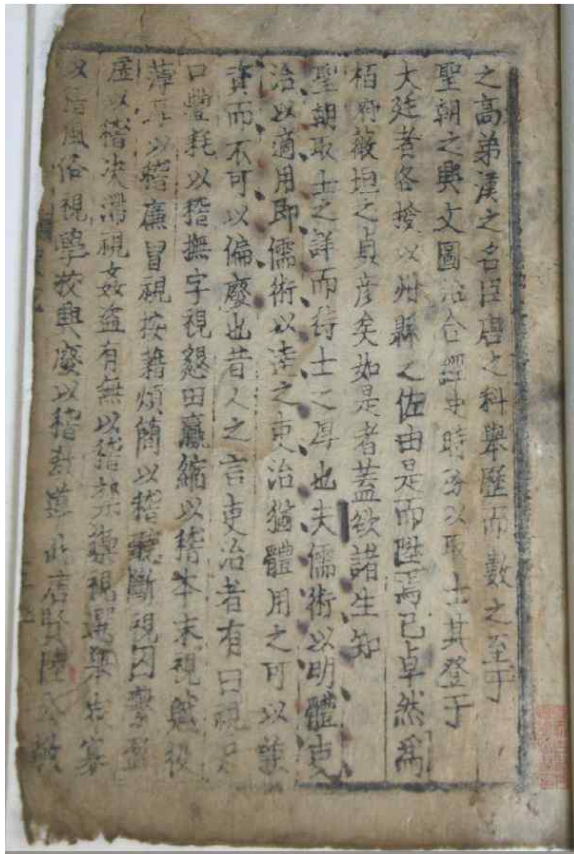
[첨부] 지정예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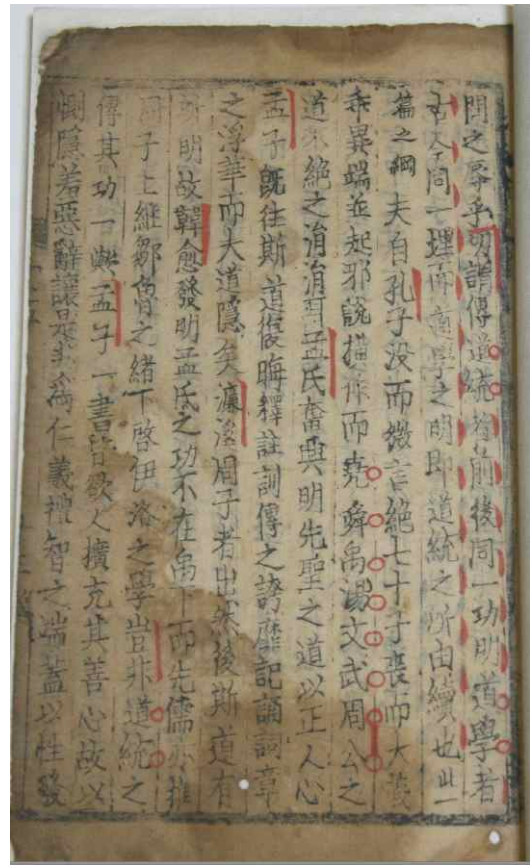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  
(고려본)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  
(조선본)